

치 사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받는 스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발심출가한 뒤 20여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원력으로 수행하여 오늘에 이른 스님들의 정진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2급 승가고시를 면밀하게 진행하여 여법하게 회향하도록 애써주신 고시위원 스님들과 오늘의 품서식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계사 주지스님과 소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덕 혜덕스님 여러분!

‘처음에 올바르게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20여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속에 느꼈던 감동, 그 열렬하고 생생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출가할 당시의 초발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편리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자살률과 범죄율,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갈등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불교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종단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승가고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학과 수행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전법과 사찰운영 등의 내용을 승가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와 호흡하는 불교,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스님들께서는 종단의 중심이자 변화의 핵심입니다. 한국불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수행과 정진, 그리고 전법교화의 중심이 되어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덕·혜덕 법계품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11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